

## 제5회 동경아프리카개발회의의 주요 결과와 평가

작성자 : 전혜린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)

작성일 : 2013년 6월 14일

### ■ 제5회 동경아프리카개발회의(이하 TICAD V: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)<sup>1)</sup>가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요코하마에서 개최됨.

- 아프리카 51개국(39명의 정상급 인사 포함) · 아프리카 역외 국가 35개국 · 국제기구 74개의 대표단 이외에도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의 참여로 4,500명 이상이 참가,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 수를 기록
  - TICAD I (아프리카 48개국-정상급 5개국); TICAD II (51개국-14개국); TICAD III (50개국-24개국); TICAD IV (51개국-41개국, 총 3,000명 참가)
  -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성장의 중요성을 반영, 아프리카 정상과 일본의 민간기업 대표가 직접 대화하는 ‘민간과의 대화’ 세션이 처음으로 진행됨.
- 지난 20년간 TICAD는 협력의 범주를 개발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 확장하는 한편 지원 규모를 확대해왔으며, 선언한 바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신뢰에 기반 한 일-아프리카 협력관계를 공고화하는데 일조

표 1. TICAD I-IV의 주요 내용

회차	1회( '93)	2회( '98)	3회( '03)	4회( '08)
목표	포괄적 아프리카 정책 수립	빈곤사감	국제사회의 지원 결집	역동성 · 성장가능성 강조
분야	- 자조노력 강조 - 아시아-아프리카 남남 협력 추진	- 사회개발 - 경제개발 - 개발기반 마련	- 인간중심 개발 - 경제성장 - 평화정착	- 성장의 가속화 - 인간안전보장 확립 - 환경 · 기후변화 대책마련
규모	-	-	\$10억(5년간, 무상)	연평균 양자간ODA \$18억, 대阿 FDI \$34억으로 배증

주: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.

### ■ 일본은 향후 5년간 약 140억 달러 상당의 개발원조를 포함, 민관 합계 최대 320억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지원계획을 발표<sup>2)</sup>

- 일본의 지원책은 크게 △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아프리카 성장 지원(무역 · 투자, 인프라, 인재육성) △ 인간의 안전보장 확립 지원(식량안보, 보건, 교육, 평화와 안정)으로 구

1) TICAD는 일본-아프리카 협력 방향 및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로, 양측 이외에도 공여국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아프리카 개발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임.  
2) TICAD IV의 지원내역이 세분화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연평균 양자간 ODA 약속 금액이 18억 달러(5년간 90억 달러)였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됨.

분할 수 있음.

표 2. TICAD V의 중점지원 분야 및 내용

주요 분야		세부 지원 내용
경제성장 촉진	무역·투 자	- 일본무역보험(NEXI)의 무역·투자보험 지원(최대 20억 달러) - 국경통관수속원활화시설(OSBP: One-Stop Border Post) 20개국에 보급
	민간부문	-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(EPISA: Enhanced Private Sector Assistance for Africa)를 통한 재정지원(5억 달러)
	자원	- 석유천연가스·금속광물자원기구(JOGMEC)의 리스크 머니 제공(20억 달러) - 자원분야 인재육성(1,000명)
인프라 정비 및 역량강화 촉진	<b>인프라 정비</b>	- 65억 달러 상당의 공적자금 투입 - 도시계획·교통망·인프라 정비를 위한 전략적 마스터플랜 수립(10개소 대상)
	<b>인재육성</b>	- 산업인재 3만 명 육성: TICAD 산업인재육성센터 설립(25개국 대상, 10개소) - '아베 이니셔티브(아프리카청년을 위한 산업인재육성 이니셔티브)' 발족: 1,000명의 아프리카 청년에게 일본유학 및 일본기업 내 인턴십 기회 제공
	과학기술	- 범아프리카대학(PAU: Pan-African University) 및 이집트·일본과학기술대학(E-JUST: Egypt-Japan Univers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) 등의 연구기관 및 대학과 기술협력
	관광	- 외무성 및 일본여행업협회(JATA) 등에 의한 관광박람회 10회 개최 - 관광분야 인재육성(700명)
농업 및 식량안보	생산성 향상	- TICAD IV의 '아프리카 벼농사 진흥을 위한 연합(CARD: Coalition for African Rice Production)' 이니셔티브 지속(생산량 1,400만 톤 → 2,800만 톤) - 상업적 원예농업으로의 전환 및 농가 소득 증대 지원 프로젝트(SHEP: Small-holder Horticulture Empowerment Project)(10개국 대상)
	<b>인재육성</b>	- 농업지도자 1,000명 육성 및 5만 명의 소농 육성
지속가능한 성장	환경보호	- 34개국에 대한 삼림면적감소방지 및 생물다양성보호 지원(TREES 이니셔티브)
	에너지	- 저탄소에너지 지원(20억 달러) 및 양국간 탄소상쇄배출권 제도 도입 촉진
교육·보 건 분야 지원	교육	- 질 높은 교육 환경 제공(어린이 2,000만 명 대상, 이과 교육 확충 강조)
	보건	- 5억 달러 지원 - 보건·의료 분야 인재육성(12만 명)
	위생	- 1,000만 명에 대한 식수 접근성 및 위생 개선
평화·안 정 및 민주주의 정착지원	평화구축	- 북아프리카·사헬 지역의 테러대처능력향상을 위한 인재육성(2,000명) - 사헬지역에 대한 개발·인도지원(10억 달러) - 소말리아 해상의 안전 확보 지원 -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지원 지속
	거버넌스	- APRM(African Peer Review Mechanism) 지원 - 사법·미디어·지방자치·치안 분야 행정관료 육성(5,000명) - 역내통합 강화 지원

주: 일본외무성(<http://www.mofa.go.jp/mofaj/files/000005939.pdf>).

■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과 아프리카 측 요구인  
‘인재육성과 민간부문 협력 강화’를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.

- 특히 전 분야에 걸친 대규모 인재육성 지원책(5년간 140억 달러 지원 예정)은 아프리카 국가의  
보편적·만성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높은 청년실업률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  
대

〈자료: 일본외무성, allAfrica.com, Reuters 등〉